테마칼럼 | 책과 세상 | 신재생에너지 | 문화 상상력 | 도시발전

꽃들에게서 지혜를 얻다

강 맑 실

“ 눈밭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는 자신이 방출한 열이 주변의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눈을 뚫고 일찍 꽃을 피울 수 있다. 주변의 식물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서둘러 꽃을 피우고 생을 마쳐 경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후손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시기를 달리하는 틈새 전략을 활용해 경쟁을 피하는 식물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

혹한이 계속되고 있다. 라니냐현상으로 올 겨울은 기습한파가 잦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한다. 그러나 백두산 꼭대기의 툰드라만 할까. 두세 달 정도만 10도 이하의 영상 기온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 내내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동토의 땅, 툰드라. 그래서 툰드라는 러시아어로 ‘나무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런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초속 15~35m의 강풍과 혹한, 수시로 하늘을 뒤덮는 검은 구름과 안개, 밤톨 크기의 우박 등으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두세 달 정도의 짧은 성장기간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식물들이 있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막힐 때 종종 ‘식물의 살아남기’(이성규 글·김정명 사진, 대원사 2003)라는 책을 집어 든다. 거기에는 백두산 툰드라에서 서식하는 식물들과 그들의 삶과 사랑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은 눈물겹지만 그네들의 수많은 전략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지혜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숭고하기까지 하다.

대표적 전략 몇 개만 살펴보자. 첫째, 대부분의 식물들이 10㎝ 이하로 키를 낮춘다. 바람에 저항하고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불처럼 따스한 눈에 덮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여럿이 뭉쳐 카펫이나 쿠션 모양의 집단을 이룬다. 방향 없이 수시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쉽게 분산시키고, 밀집함으로써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넓은 밭을 이룬 야생화 군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잎을 가늘거나 작게 하고 지표면에 가깝게 뻗어나간다. 이 역시 바람을 가르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이다.

넷째, 식물 스스로 추위에 생리적으로 저항하여 잎 속에 부동액을 만들어 추위를 견디고 동결을 막는다. 노란만병초의 푸른 잎을 떠올려 보라.

다섯째, 꽃의 색깔을 선명하고 짙게 한다. 생장기간이 짧은 만큼 꽃가루받이를 위해 곤충을 빨리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백두산 야생화가 여느 꽃들보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네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툰드라 식물의 공통된 전략일 뿐 식물 하나하나의 독특한 전략을 살펴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두메양귀비는 꽃잎이 하늘하늘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꽃잎을 꼭 오므리고 꽃대를 숙인다. 심한 바람이 불 때는 반대 방향으로 180도 꽃대를 돌려 바람을 피한다. 아기가 태어나도록 해줄 꽃가루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눈밭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는 자신이 방출한 열이 주변의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눈을 뚫고 일찍 꽃을 피울 수 있다. 주변의 식물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서둘러 꽃을 피우고 생을 마쳐 경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후손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시기를 달리하는 틈새 전략을 활용해 경쟁을 피하는 식물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꽃의 색깔이나 모양, 냄새, 무늬, 이 모든 것은 식물이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다. 수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해온 결과의 모습이다. 암수 결합의 목적 역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후손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면밀하게 기획된 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

식물들 또한 인간 사회 못지않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인간처럼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고 오랜 세월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비록 두뇌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존 전략을 짜내고 그 전략을 실천하는 그네들에게서 오늘도 나는 지혜를 얻는다.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곳곳서 AI 징후 초기 대응 만전 기하라

영암과 구례, 함평, 장성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징후가 나타나 큰 걱정이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며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서 지역 방역망도 언제 뚫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AI까지 만연한다면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암과 구례 오리농장에서 8천 마리의 오리가 집단폐사하고 함평과 장성 종오리농장에서는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 오전까지 오리가 집단폐사 했거나 AI 의심신고를 한 곳은 도내에서 모두 4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 오리농장 인근 오리 8만 마리를 도살처분하는 등 선제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의 첫 의심신고가 일주일이나 늦어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이 전국 오리 사육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사육지라는 점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지역 양계농가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육농가의 조기 신고를 유도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미 재앙 수준에 이른 구제역도 예방과 방역에 모두 실기(失機)하는 등 발병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I는 발생 때마다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여행업 등까지 마비되는 등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다. AI 확산을 막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가 구제역처럼 국가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지역민이 나서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는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면서 또한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노력이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닭·오리고기를 잘 익혀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 자율 규제, 학교 재량에 맡겨야

인권위원회가 이틀 전 수업시간 외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과 협의를 토대로 학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이미 ‘중독’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학교에서 만이라도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의 판단이 교단 현실과 차이가 큰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권위 판단을 내세워 학교 측의 제한 조치에 반발할 경우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광주시내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반납받아 방과 후 되돌려 주거나, 또는 본인의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7일 동안 교사에게 맡기는 등 규칙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소모적인 논란거리만 만들어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학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오죽했으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교사 65% 이상이 휴대전화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변 했겠는가.

인권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판단이자 권고 사항일 뿐이다. 문제가 없다면 휴대폰 규제는 학교 재량에 맡겨야 한다. 잘 하고 있는데 긁어 부스럼 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종교칼럼

이 원 재

진정한 숨은 승리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일인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눈도장을 찍고자 별의별 수단을 다한다. 자기들의 살아가는 처세나 방법이라고 할까?

성경에 아리마데에 사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공회의원으로 요즘의 국회의원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의 시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대단한 불이익을 당할 때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유대에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였던 율법사와 바리세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믿었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그를 극형수를 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형 틀에 못을 박아 죽이고 말았다. 그날이 금요일이라 유대력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안식일까지 시체를 놓아두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기에 어떻게든지 시체를 치워야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의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제자들은 서로 우편에 앉고자 다투기까지 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자기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자세를 낮추었다.

그러던 중 어떤 소녀가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나는 제자는커녕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와 저주까지 했다. 이처럼 모두 그의 곁을 떠났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서는 더 이상 별 볼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존재도 없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당돌히 나타나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안식일이라 시체처리문제로 골치를 앓던 터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그런데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처리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개될 것이요 그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쩌면 공회의원의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과감히 행한 행동은 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사건이다. 주변 상황에 신경쓰지 않고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을 과감히 행하였다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장차 죽어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안장했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면에서 진정 헌신 된 사람임을 엿볼 수 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소신껏 묵묵히 일하는 사람 말이다. 옛날 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더니 꼭 맞는 말이다. 올해에는 이런 숨은 봉사자 소신이 분명한 자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한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 정치나 비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해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곧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기 고

나 양 기

지방행정 달인 칭호와 진정한 소통

요즈음 TV를 켜면 생활의 달인이 자주 등장한다. 코미디 프로에 등장하는 달인이, 달인이 아니면서도 달인행세를 하며 갖가지 묘기를 보이다 한계에 이르면 결국 멋쩍게 웃음을 선사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난다.

달인은 남들이 하지않는 일에 뛰어들어 수많은 시행착오 속의 연습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달인에 근접하게 된다. 국어사전에 ‘달인’이란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나 널리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비슷한 말로는 명인, 고수, 제일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제1회 2010 지방행정의 달인’ 29명이 최종 선발됐다.

달인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각 분야별로 자유스럽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행정의 달인들은 지난해 9월16일부터 12월27일까지 3개월간에 걸친 도단위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심사 2회, 현장검증 1회, 중앙청사에서 직접발표 2회 등 총 6회의 검증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인도 어느 특정분야의 정점에 이르고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헌신봉사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행정의 달인’은 더욱더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산업진흥 분야에서 ‘석류재배의 고수’라는 별칭과 함께 행정 달인으로 선정됐다. 생과일 수입으로 연간 500억여 원에 달하는 외화낭비와 다기능성 아열대 과수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석류 자급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배기술을 외롭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으로서 사실 ‘고수’ 또는 ‘달인’이라는 칭호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중앙 정부청사에서 2번에 걸쳐 발표를 했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발표하기가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보고서와 홍보자료, 강의자료 등을 검토하며 오류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또 상담해 온 농업인에게 성의를 다해 친절히 대했는지도 반성해보면서 진정한 달인이 되기 위해 석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복의 한 사람으로서 전남 도민은 물론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과 상호 소통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또 남의 우월성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신묘년 새해에 토끼의 지혜를 빌어 상호 소통의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숙제를 주기 위해 ‘행정의 달인’이라는 호칭을 주지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실장〉

無 等 鼓

삼한사온

연초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라도 지방의 최저 기온도 연일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0도를 오르내리면서 폭설의 잔해가 며칠째 그대로 남아있다.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때 불편하고 눈을 치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가까이서 설경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 좋기도 하다. 모두 모처럼 만에 찾아온 한파 덕분이다.

마침 어제가 소한(小寒)이었다. 24절기 가운데 23번째이자 양력으로 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소한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다.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실은 15일 후에 찾아오는 대한(大寒)보다 더 춥다. 오죽했으면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을까.

소한은 양력으로 1월 5일 무렵인데, 우리 기억에 가장 추웠던 시기는 아마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긴 1951년 1월4일이 아닐까 싶다. 일명 ‘1·4 후퇴’로 불리는 이날은 혹한이 몰아쳐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얼어죽거나 동상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올해 소한 추위는 유독 춥게 느껴진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큰 추위없이 지내다가 모처럼 추위가 찾아온 탓이 크다. 겨울철의 전형적인 날씨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다. 추위가 계속되자 삼한사온이 실종됐다며 언론이 호들갑을 떨자 기상청이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한사온을 ‘사흘 춥고 나흘은 반드시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요즘 날씨가 전형적인 삼한사온이라는 것이다. 삼한사온은 7~8일을 기준으로 기온이 올랐다 내려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요즘에는 기온이 오른 날도 춥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한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춥다는 얘기인데 이 속담에는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전형적인 삼한사온이 싫지 않은 이유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

아파트 입주민들 경비원에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명예퇴직 하신 아버지께서 최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취직하셨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 않으셨지만 공기업 직장생활 경험을 인정받아 아파트 경비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날씨도 추워지고, 혼자 계시는 게 염려돼서 가끔 찾아가 뵙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가 안타깝기만 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치 하인 다루듯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야에 술을 마시고 경비실 문을 차며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맡겨둔 물건의 포장이 조금 찢어졌다고 성질을 내는 주민들도 있다.

물론 경비원이 먼저 잘해야겠지만 입주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겠다. 존경받는 시민이 되려면 약자에게 좀 더 아량을 베풀고 격려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 획 사 업 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